

아버지가 새해를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새해를 위해 갖게 만든 결단력 있는 생각들

오늘 밥다다는 새로운 세계를 더 가까이 가져오려는 자녀들의 새로운 열의와 새로운 결심에 의한 아름다운 생각들을 들으며 매우 기뻐다. 너희 각 자녀들은 너희 자신을 완성시키고 온 세계에 유익을 가져오려는 특별한 열의를 갖고 있다. 오늘 밥다다는 아직 너희 안에 어떤 약점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들에게 영구적으로 작별을 고하려는 너희의 결심을 축하하고 있다. 이 작별에 대해 너희가 받은 축하를 매일 아침 암릿벨라에 그것들을 의식하고 있음으로써 계속 강력하게 유지해라. 올해에는 너희 자신의 형태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또한 봉사의 강력한 형태도 가져와야 한다. 파멸의 책임을 맡은 그룹은 그들의 과업에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그들은 일초 만에 영혼들을 몸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킬, 즉 영혼들을 그들의 신체적인 슬픔에서 쉽게 해방시켜줄 아주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구제할 쉬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인가? 과학의 권위의 바탕이다. 마찬가지로 수립을 위한 도구인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들의 이 그룹도 일초 만에 영혼들을 여러 생 동안 마야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마야에게서 경험하는 각종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영혼들에게 영구적인 평화와 행복의 축복을 주어 그들이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도 파멸을 맡은 그룹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저 명령을 기다릴 뿐이다. 수립의 도구인 그룹도 그 정도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수립의 과업이 완성될 때 파멸을 맡은 자들이 그들의 명령을 받을 것이다. 시계바늘이 때가 되었음을 보여줄 때 벨은 자동적으로 울릴 것이다. 따라서 무한한 시계도 수립이 완수될 때 “시계바늘”이 파멸의 벨이 울릴 때가 되었음을 자동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완성을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암릿벨라에 새해를 위한 자녀들의 새로운 열의를 들으며, 밥과 다다는 새로운 주제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브라마 바바가 말했다: 해방의 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브라마가 해방의 문을 열기 전에는 다른 영혼들이 해방의 나라로 갈 수 없다. 브라마 바바는 묻는다: 내가 지금 그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버지가 말한다: 너는 혼자서 이것을 열려느냐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하려느냐? 브라마 바바가 말했다: 친자녀들과 외붓 자녀들의 부름과 슬픔과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며, 나는 큰 자비를 느낀다. 아버지가 말했다: 브라마 바바의 동반자들이며 여러 형태와 관계로 브라마 바바와 함께 그들의 역할을 행한 고귀한 승리의 보석들의 염주, 동반자들인 그런 승리의 보석들의 염주가 준비되었느냐?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너희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여러 다양한 형태와 관계 안에서 다시 함께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약속에 따른다면, 어떻게 그 동반자들 없이 문을 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새해를 위한 브라마 바바의 새로운 생각을 들었느냐? 승리의 그룹은 올해 아버지의 이 생각을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올해에 너희 고귀한 승리의 보석들이 아버지의 이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라는 너희의 특별한 형태로 영혼들을 일초 만에 해방시키는 기계가 빨리 돌아가게 해야 한다. 영혼들의 대다수가 이제 물질의 유한한 시설과 영적인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한적인 장소들에 대해 지쳤다. 그들은 영혼들에게 신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제 지쳤다. 영혼들은 이제 그들에게 실망했고 진리는 뭔가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뭔가 성취를 얻고자 목말라한다. 영혼과 지고의 영혼에 관한 정확한 소개의 단 한 방울만으로도 그런 영혼들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의 감로의 물동이를 가지고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식혀 주어라. 끊임없이 감로 향아리를 지니고 있어라. 움직여 나가면서 계속 영혼들에게 이 감로를 줌으로써 그들을 불멸하게 만들어라. 그럴 때라야 너희가 아버지 브라마와 함께 해방의 문을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그저 바완들만이 개관되고 있는데, 이제는 무한한 문이 개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불멸한 상태에 있고 남들을 불멸하게 만들어라. 불멸해지라는 축복의 화신이 되어라. 마지막 노력이 영혼들, 지극히 나약한 영혼들은 이제 더 이상 노력을 할 용기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힘으로 그런 영혼들이 강력해져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축복을 주는 형상이 되는 역할이 지식을 주는 역할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영혼들은 심지어 들을 힘조차 없다. 그들은 더 이상 계속 해 나갈 용기가 없다. 그들은 그저 뭔가를 받기를 목말라 한다.

많은 그런 영혼들이 온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걸을 다리를 주어야 한다. 즉, 그들

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용기의 재고를 축적했느냐? 너희들의 감로의 향아리가 가득 찼느냐? 그것이 무한하냐? 그것이 한결 같으냐? 줄을 서기 시작해야겠느냐? 너희 자신의 줄은 끝났느냐? 만일 너희가 아직도 너희 자신의 줄을 처리하느냐 바쁘다면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완성시키겠느냐? 그러므로 올해에는 너희 자신의 줄을 끝내라. “왜?”, “무엇이?” 와 같은 말을 바꿔라. 단 하나의 언어만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의 생각의 언어와 말은 그저 축복만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너희들은 축복을 주는 이미지여야 하며 모든 이에게 축복을 뿌려주는 강연을 해야 한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들이 누구든 강연을 들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꽃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느껴야 한다. 그럴 때라야 이 개관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새해에 가져와야 할 새로움이다. 앗차.

끊임없이 감로의 향아리를 들고 있는 자들에게, 모든 생각을 통해 축복을 주는 자들에게, 다른 영혼들의 용기를 높여주는 자들에게, 용기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와 함께 한결 같은 동반관계의 역할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승리의 보석들에게, 완성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다디들의 미팅:

왜 브라마가 이 생각을 했는가? 너희들은 이 비밀을 아느냐? 세계가 브라마의 생각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브라마의 생각을 통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샹카르는 누구이냐? 이것도 역시 깊은 비밀이다. 브라마는 비슈누이니, 샹카르는 누구이냐? 너희들은 서로 이것을 토의해야 한다. 이제 축복을 주는 형상들의 그룹이 있게 해라. 손에 물리적인 깃발을 든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승리의 깃발 - 자신의 샹티의 형태의 승리의 깃발 - 을 의식 속에 높이 올리고 있는 자들의 그룹이다. 이 그룹은 영적인 사회복지사 그룹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 그룹이 지금 무대 위에 필요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무대 위에 있는 자들에게로 끌린다. 현재 그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라는 커튼 뒤에 있다. 이제 그 커튼 뒤에서 봉사 무대 위로 올라옴으로써 세계의 영혼들이 주인공 배우들을 볼 때 단 한 눈길에 저 너머로 갈 수 있게 해라. 이제 그런 그룹이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진리의 권위의 소리가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 현재 너희들은 아기 폭탄들을 떨어트리고 있는데, 이제 신의 폭탄을 떨어트림으로써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쉬운 방법은 끊임없이 “밥다다, 밥다다”를 너희의 입과 생각 속에 염주처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 단 한 가지 관심사 - 밥다다 - 만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끊임없이 이 관심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율조림이다. 너희가 이 소리 없는 율조림을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오직 이것에만 바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시간이 없을 때에는 어떤 것이든 낭비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올해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었느냐? 오늘의 생각에서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아라. 시계 바늘은 브라마 바바다. 그러면 시계 바늘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은 물론 서틀리전 너머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앗차.

밥다다와 이중외국인들의 미팅:

밥다다는 이중외국인 자녀들의 집중적인 노력의 속도를 보며 기쁘다. 외국인 자녀들은 그들의 참된 아버지, 참된 나라, 그리고 참된 종교를 매우 잘 알아보았다. 그것은 마치 단순히 아버지의 소개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 지난 사이클의 준비된 땅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 밥다다는 이 그룹 안에 밥다다의 목 둘레의 염주의 구슬인 일부 보석들이 있음을 안다. 아버지는 그런 구슬들이 세계에 드러나고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를 세계에 드러내는 많은 장면들을 보고 있다 그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 모두 너희 자신을 그런 더 없이 귀중한 보석들로 여기느냐? 가장 귀중한 보석은 어디에 간직되었느냐? 귀중한 보석들은 가슴의 작은 용기 안에 넣어둔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슴속에 있다. 즉, 그들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지낸다. 너희들 모두 너희 자신을 집중적인 노력가로서 경험하느냐? 너희들 모두 어느 줄에 들어 있느냐? 높이뛰기를 하는 자들의 줄이다, 그렇지 않느냐? 더블라이트인 자들은 언제나 높이뛰기를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어떤 종류든 짐을 지고 있으면 높이뛰기를 할 수 없다. 너희들 모두가 오래 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소개를 받자마자 너희들은 쉬운 요가를 통해 쉽게 그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어떤 것도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 어떤 것이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것이며, 그러면 너희들은 축복의 손이 끊임없이 너희 위에 있음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일초 만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아버지 앞에 앉을 수 있느냐? 신성한 눈과 신성한 지각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한 자들이다. 아버지는 너희 영혼들이 세계 앞에 모범이 되었고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훌륭한 조치를 취한 것을 안다. 세계가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앗차.

밥다다와의 개인적인 미팅:

1. 너희의 마지막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징표는 너희가 다른 모든 것에서 물러선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목적지가 매우 가까움을 끊임없이 경험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곧 천사체의 삶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느끼느냐? 이 최종 목적지에 더 가까워질수록, 너희들은 다른 모든 이에게서 더욱 더 초연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뭔가가 요리가 거의 다 되었을 때는 냄비에서 분리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완전한 단계에 가까워질 때는 모든 이로부터 더욱 더 초연해질 것이다. 천사는 한 분과 모든 관계를 맺는 자다. 너희들은 너희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서 물러서고 있음을 느끼느냐? 뭔가가 완전히 요리되지 않으면 냄비 바닥에 붙지만 요리가 다 되면 냄비에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다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태도에 있어서 모든 관계로부터 물러났느냐 아니면 아직도 뭔가 애착을 갖고 있느냐? 만일 너희의 속도가 느리면 제 때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무 늦게 도달하면, 뭔가를 성취한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 사방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가를 체크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너희가 천사체의 삶에 가깝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너희가 한 분과 모든 관계를 맺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배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곧장 목적지로 가야 한다. 한 분과 모든 관계가 충족되는 것이 너희의 목적지다. 너희의 마지막 천사체 형태를 끊임없이 의식 속에 간직해라. 너희의 의식에 따라 너희의 단계도 같을 것이다.

2. “와 드라마! 와!”의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봉사해라. 드라마를 보면서 너희들 모두 끊임없이 “와 드라마! 와!”의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나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볼 때 두려워하지는 않겠지? 너희들은 드라마의 지식을 얻었고 현재의 때가 자비롭고 유익한 시대임을 알므로 너희 앞에 어떤 장면이 오더라도 그 안에 유익이 들어 있음을 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미래에 들어 있는 유익이 드러날 것이다. “와 드라마! 와!”를 기억해라. 그러면 끊임없이 행복을 유지할 것이며 너희의 노력에 대해 결코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통해 남들에게 자동적으로 봉사가 될 것이다.

3. 끊임없이 가득 차 있는 협조적인 영혼들을 축복한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통해 야기야를 가득 채우는 영혼들, 때에 맞게 협조의 손가락을 내어준 자들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배의 보답을 축적한다. 시간도 또한 귀중하고, 따라서 수렵 과업의 초창기에 필요할 때 협조한 영혼들은 그 보답으로 가득 차고 완성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흘러 넘쳐 왔었고 계속 그럴 것이다. 앗차.

축 복: 땅과 맥박과 때를 보면서 지식으로 충만 되어 참된 지식을 드러내라.

아버지의 이 새로운 지식은 참된 지식이다. 새로운 세계는 이 새로운 지식으로 수립된다. 이것의 권위와 도취감이 언제나 너희의 형태 안에 들어있게 해라.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이 새로운 지식의 새로운 면을 어떤 사람이 오자마자 말해주어서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땅과 맥박과 때를 고려하고, 그런 다음에 지식을 주어라. 이것이 지식으로 충만함의 징표다. 영혼들의 욕망을 고려하고, 그들의 맥을 짚어보고, 받을 준비해라. 그러나 내적으로는 또한 반드시 진리에서 오는 두려움 없음의 힘을 지니고 있어야. 그러면 참된 지식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슬로건: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당신의 것”이라 말하는 것은 산처럼 큰 상황을 묵화 숨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움 산티 O M S H A N T I ***